



세계 노사정 소식

미국

미국 : 위스콘신주(州) 판사, 새 단체협상법 무효화

위스콘신주 판사는 지난 9월 14일 스콧 워커 주지가 밀어붙였던 주법의 대부분을 폐지하였는데, 그 법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대부분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었다.

워커 주정부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고, 이 법에 대해 극렬하게 저항했던 노조 측은 승리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이 판결이 기존 계약에 효력을 미칠지는 명확하지 않다. 노조 측은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워커 주지사 측은 법정 싸움이 끝날 때까지 법이 효력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워커 주지사를 보수의 전국구 스타로 만든 이 단체협상법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거의 모든 단체교섭권을 박탈하였고, 1년 이상을 발효되어 왔다.

데인 카운티 후안 코라스 순회재판 판사는 이 법이 주법과 연방헌법을 위반하였다며 이를 무효화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즉, 이 법이 헌법에서 보장된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교사, 시 공무원, 카운티 공무원을 비롯하여 새로운 단체협상법의 영향을 받았던 모든 지역 공공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주정부 공무

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메디슨 교사노조와 밀워키 공공노조에 의해 제기된 이 소송에서 그들은 소송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워커 주지사는 “미국이 퇴보되기를 원하고, 입법부와 주지사의 입법 책무를 무시하는 자유주의 운동가”라며 주 판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상고심에서 결국 주정부의 입장이 관철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위스콘신 법무부 다나 브루에크 대변인은 법무부의 판단으로는 새 단체협상법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말하였다.

메디슨 교사노조 레스터 파인스 변호사는 판결은 곧 (학군(school districts)을 비롯한) 모든 지방정부가 이전처럼 종업원들을 대표하는 노조와 협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문제가 결국 주 대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단체협상 법안은 작년 2월 워커 주지사가 집권한 직후 발의되었는데, 그 결과 격렬한 반대와 몇 주

간에 걸친 주 의사당에서의 대규모 시위를 야기하였다. 총 14명의 민주당 주 상원의원들은 공화당이 다수인 입법부에서 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지 못한 책임으로 일리노이주에 3주 동안 피신해 있기도 하였다.

그 법안은 공공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납부액을 인상하는 동시에, 이들이 이 의제들을 단체협상 테이블로 가져올 수 없도록 만들었다. 워커 주지사의 논리는 주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당시 위스콘신주는 30억 달러(한화 약 3조 3,333억 원)의 예산 부족에 직면해 있었다.

“이는 위스콘신 근로자들과 언론자유의 위대한

승리이다. 이 판결로 종업원들과 고용주들 간의 힘의 균형이 다시 유지될 것”이라고 민주당 원내 소수자 대표 피터 바르카 씨는 말한다.

새 단체협상 법안의 통과는 워커 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선거로 이어진 바 있다. 93만 명 이상이 6월의 소환 선거를 성사시키기 위해 서명했었다. 그러나 당시 워커 주지사가 승리하였고, 미국 역사상 소환 선거에서 살아남은 첫 번째 주지사가 되었다.

- 출처: Associated Press, 2012년 9월 14일자, 'Wisconsin judge strikes down collective bargaining law'

미국 : 감소 추세를 보이는 대학원 진학률

대학 진학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대학원 진학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학원 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새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 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감소했다.

2008년과 2009년, 경기침체로 인해 일자리를 찾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근의 대학원 진학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원 진학 추세 변화의 주요 원인은 학비 등 경제적 문제들 때문이다. 대학 입학 이후 계속되는 학자금 대출 부담으로 인해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게 된다.

또 주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많은 공립학교들이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다는 점도 대학원 진학률이 감소하는 원인이다.

2011년 가을 학기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등록된 학생 수는 2010년 가을 학기보다 1.7%가 감소했다(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학위과정은 제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경우 대학원 입학 허가가 2.3% 감소했다. 반면 외국인의 미국 대학원 진학률은 7.8% 증가했다.

전체 미국 대학원 과정에서 외국인 학생의 비율은 16.9%이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외국 정부가 자국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더 크게 증가했다. 엔지니어링 분야의 대학원생의 45.5%는 외국인 학생이며, 컴퓨터 공학과 수학 전공 대학원생의 42.4%는 외국인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진학률 감소 추세는 분야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교육학 분야의 대학원생 등록률은 8.8%가 감소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주정부들이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학교 시스템은 특히 더욱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교사들은 더 이상 대학원 학위 취득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더 이상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대학원 교육협의회 회장인 Debra Stewart 씨가 말했다.

교육대학원에 이어 인문학 대학원 과정도 등록률이 5.4% 감소해 두 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인문학의 진학률 감소는 인문학 분야의 어두운 취업 전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보건대학원의 경우 진학률이 크게 증가했다. 경기침체와 더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보건산업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보건의료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학생은 6.4% 증가했다. 그러나 2001년에서 2011년 기간 동안의 9.8% 평균 증가율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경영학의 경우 2.6%의 증가율을 보였고, 수학과 컴퓨터공학은 1.6%의 진학률 증가를 보였다.

전체 대학원의 진학은 감소하고 있지만 지원자의 수는 4.3% 증가했다. 지원자의 수는 6년 동안 지속

적으로 증가했다.

대학원 교육협의회는 대학원 입학지원자가 몇 개의 학교에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전 연도에 비해 2011년에 더 많은 사람이 대학원에 지원을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대학원에서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G.R.E. 시험의 응시자 수는 증가했다.

대학원 지원자 수 증가로 인해 입학허가 비율 또한 감소했다. 2007년에는 입학허가 비율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모두 포함해 44.6% 수준이었던 데에 반해 2011년에는 40.8%로 감소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이 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의 비율은 42 대 58이다.

대학원 교육협의회는 미국과 캐나다의 고등교육 기관의 조직이다. 이 협의회가 발표한 내용은 미국 대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조사의 내용이다. 2011년 보고서는 석사과정 프로그램의 81%, 박사과정의 92%를 차지하는 655개 기관의 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했다.

• 출처: 뉴욕타임스, 2012년 9월 28일자, ‘Enrollment Drops Again in Graduate Programs’

미국 : 실업률 4년 만에 최저 기록

노동부의 지난 10월 5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9월) 11만 4천 명의 근로자들이 더 고용되었는데 이는 나쁘지 않은 수치이다. 이전 두 달간(7~8월)의 신

규 일자리도 알려진 것보다 8만 6천 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수정하였다. 보고서의 다른 내용들도 긍정적이다. 특히 별도 가구조사 결과 역시 고

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률은 0.3%포인트 낮아졌는데 이는 200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뉴저지 프린스턴의 스톤 앤 맥카시의 경제학자 래이 스톤 씨는 “좋은 보고서이다. 아직 완벽한 그림은 아니지만 우리가 겪었던 역풍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 나쁜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쟁자인 공화당 미트 롬니 후보는 노동시장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비판하지만, 오바마는 이 보고서가 경제가 앞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기업들은 내년 연방예산 긴축, 유럽 재정위기의 악화, 세계경제 불황 등으로 경기회복이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신규채용 늘리기를 주저하였다. 올해 지금까지 일자리 증가는 월평균 14만 6천 개인데 이는 2011년의 월 15만 3천 개와 대비된다.

경제학자들은 9월 실업률이 8.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경제활동인구로 다시 편입되어 일자리를 물색하는 미국인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실업률은 하락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이전 두 달 동안 감소하였다.

가구조사(이는 월별로 매우 불안정할 수 있다)에 따르면 고용은 87만 3천 개 증가하였는데, 지난 석달 동안 처음으로 증가한 것이며, 1983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량이다. 그러나 그 중 3분의 2가량이 전일제 근무를 원했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한 미국인들이어서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반감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일자리 증가 수치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데이터틀 사용하기도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조사 결

과들은 서로 일치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추세가 바뀔 때 가구조사 결과에 먼저 반영된다고 말한다.

경제학자들은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보고서가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인구 대비 고용률(노동가능인구 중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증가하여 2010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월스트리트 주가는 처음에는 상승했지만-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근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이후 투자자들이 폭리를 취함에 따라 다시 하락하였다. 달러는 2주 동안 엔화보다 강세를 보였고, 미국 재무부 채권 가격은 하락하였다.

노동시장 호조로 연준(연방준비은행)이 화폐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에서 예상보다 일찍 손을 뗄 것으로 거래자들이 예측함에 따라 미국 선물시장 이자율 또한 하락하였다.

그러나 일류 채권 달러에 대한 로이터 여론조사 결과는, 연준이 지난달 발표된 경기부양책을 위해 6천억 달러(한화 약 665조 원)를 사들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이제 11월 6일 대선 전에 발표될 고용보고서가 하나 더 남아 있고, 이는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향하기 바로 나흘 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집권 당시 한 달에 8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52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근교에서 열린 유세에서 자신을 변호하였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2007~2009년 불황이 시작할 당시와 비교하여 여전히 450만 개가량의 일



자리가 부족하며, 롬니는 노동시장이 아직 건강함과 거리가 멀다고 유권자들에게 환기시키려 하고 있다.

롬니는 버지니아주 애빙턴의 지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 달에는 지난달보다 더 적은 신규 일자리가 생겼고, 아시다시피 올해 실업률은 매우 느리게 감소하였다. 올해 실업률이 떨어진 가장 주된 이유는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요일 발표된 로이터/Ipsos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요일 대선토론회 이후 롬니가 오바마와의 격차를 단 2포인트로 좁혔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번 일자리 보고서로 오바마의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좋은 경제 뉴스는 좋은 정치 뉴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토론회 이후 이것이 필요했고, 그의 정책이 잘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었다”라고 프린스턴 대학교의 즐리안 켈리저 씨는 말한다.

이와 같이 놀라운 실업률 감소에 대해 제네럴 일렉트릭 사의 전직 최고경영자 잭 웰치는 수치가 다소 조작되었다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이 시카고 양반들은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오바마 선거운동팀을 지칭하였는데, 웰치는 로이터의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오바마의 수석경제참모 앨런 크루거는 수치를 안 믿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로이터 TV에서 “정말 터무니없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노동통계국이 통계를 조작한다고 생각하겠는가?”라고 말하였다.

계속 부실한 노동시장 상황으로 연준은 고용이 다시 증가할 때까지 매달 400억 달러(한화 약 44조 원)

의 주택담보대출저당증권(MBS)을 매입하기로 9월에 발표하였다.

노동시장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중앙은행이 이렇게 빨리 경기부양책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저번 연준 회의에서 경기가 괜찮게 회복하더라도 당분간 완화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연준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뉴스이다. 그러나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보다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들의 정책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뉴욕의 TD 증권사의 수석경제학자 밀란 무레인 씨는 말한다.

연준의 극단적 완화 기조는 신용을 풀기 위한 것이다. 한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소비자 신용이 -1년 전(작년 7월) 처음 하락한 이래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완화된 자금은 소매업과 주택건설을 부양시켰다. 소매업에서의 고용은 9천 4백 명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교통과 물류업 또한 1만 7천 100명이 추가로 고용되었으며, 금융서비스 고용은 1만 3천 명 증가하였다. 그리고 교육/의료 부문도 4만 9천 명이 늘어났다.

정부 일자리는 8월 4만 5천 명이 증가한 후 1만 명이 또 늘어났다. 지난달 증가는 대부분 주정부 및 지방정부 교사 일자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정규직 채용을 가늠할 수 있는 임시직 고용은 2천 명 감소했고, 제조업의 임금고용은 1만 6천 개 줄었는데, 이는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이다. 컴퓨터, 전자, 교통 부문의 고용 감소는 제조업 전반

의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달 평균 시간당 임금은 7센트 올랐는데 이는 6월 이후 가장 큰 증가이며, 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평균 노동주수도 약간 증가하였는데 이

는 경제가 건강해졌다는 또 다른 증거이다.

• 출처: 로이터, 2012년 10월 5일자, 'U.S. jobless rate tumbles to near four-year low'

미국 : 패널연구 결과, (민간부문 근로자들에 대한) 연방 근로자들의 임금격차 확대

지난 10월 19일 정부 자문단은 연방정부에 고용된 사무직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민간부문보다 35% 덜 받았다고 발표하였는데, 이 수치는 작년의 경우 26%였고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연방급여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수치는 노동통계국 데이터에 기초하였는데, 매년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데 이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방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지난 2년간 동결되어 있었다. 지난 8월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연장하여 내년 4월까지 동결한다는 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그 후 0.5%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노동조합 지도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방급여위원회 위원들은 벌어진 임금격차가 임금 동결과 더불어 노동통계국이 임금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조사 기법의 변화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미국공무원연맹 회장이자 급여위원회 위원인 데이비드 콕스 씨는 "이는 임금격차가 있고 연방 근로자들이 적게 받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적절한 생활비 보상을 받거나 낮은 보수에 걸맞게 업무량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무부 직원노조 위원장이자 급여위원회 위원인

폴린 켈리 씨는 "연방 근로자 급여를 계산할 때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고 허구적인 사실도 이용된다. 이 방법을 사용한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 이 수치를 가지고 주장을 펼치려면,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이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해야 한다. 주어진 정보들에 의지하면 그 격차가 0으로 줄어들 수는 없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논쟁하였고, 연방임금은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왔다. 그러다가 최근 대통령 선거운동 등을 통해 정부고용 노동력에 대한 비용이 더 면밀하게 검토되었다. 공화당 대선후보 미트 롬니는 자연감원을 통해 연방 근로자의 10%를 감축하는 안을 제안하면서, 그들이 평균 30~40% 더 많은 임금을 지급받겠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에 기초한 것인데, 월급에 부가되는 각종 혜택들을 계산에 포함시켜 연방 근로자들이 평균 22% 더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부 데이터에는 이러한 혜택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를 진행했던 헤리티지 재단의 수석정책연구원 제임스 셔크 씨는 "연방 근로자 노조를 제외하고, 이 수치를 본 사람들이라면 연방 근로자들이 보수



를 너무 적게 지급받는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밖의 연구들은 다른 데이터와 방법을 적용하는데 교육수준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을 통제하고 평균적으로 연방 근로자들이 더 많이 지급받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최근 회계감사원은 이들 연구 중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연방 관료들은 연방 노동력이 관리인부터 물리하자(데이비드 와인랜드의 경우 최근 노벨상까지 수상했다)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들은 학력이 높을 경우 민간부문의 같은 직종보다 적게 받는다고 말한다.

연방임금 수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인사국에 따르면 연방 근로자가 가장 적게 지급받는 곳은 워싱턴-볼티모어 지역인데 민간부문보다 평균 50%

정도 적게 받고 있다. 그 데이터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산호세, 샌디에고, 로스앤젤레스, 뉴욕의 경우 평균 40% 이상 더 적게 지급받는다. 전국 31개 도시의 시외 지역 또한 연구되었는데 격차가 23%로 가장 작았다.

급여위원회의 권고는 상급기관으로 가며, 백악관에 보고된다. 그리고 연방 임금인상안 협상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전반적인 임금인상은 동결되었지만, 개별 종업원들의 경우 실적이나 승진에 따라, 또는 일부 연방 임금 시스템에서 운용하고 있는 (노동쟁의) 냉각기간의 결과에 따라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

• 출처: Washington Post, 2012년 10월 19일자, 'Pay gap widens for federal workers, panel says'

미국 : 폭풍 때문에 일을 못해 수입이 없는 사람들

브룩클린에서 시간당 10달러(한화 약 11,000원)의 간병일을 하는 쉐틀 샌빌러스 씨는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번 주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의 한 명이 될 수밖에 없었다. 즉, 그녀는 윌리엄스 버그 교(橋)를 걸어서 건너다녔다.

봉급받는 종업원들은 허리케인 샌디의 피해로 가능하면 집에서 일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뉴욕커들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더해 태풍 피해로 일거리를 - 거의 일주일 동안이나 - 잃게 생겼다.

주로 시급으로 지급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고용주들의 기분에 따라 일거리를 받곤 하는데, 고소득자들과는 달리 경기회복기에 임금이 하락하였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뉴욕시 하위 20%는 연소득이 463달러(한화 약 51만 원) 감소한 반면, 상위소득자는 2,000달러(한화 약 221만 원)나 상승하였다. 그리고 파트타임 근로자들과 시급 근로자들이 점점 더 늘어났는데, 이 유형의 근로자들은 실업수당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혜택에서 제외된다. 경기회복이 시작된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증가한 일자리의 86%가 시급 일자리이다. 그리고 전체 일자리의

약 60%가 시급 일자리이다.

경기침체가 이러한 양극화를 불러왔다면, 허리케인 샌디는 근근이 먹고 사는 사람들을 더 극단으로 몰아갔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채플 힐 캠퍼스의 사회학과 교수이며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의 저자인 아노 켈리버그 씨는 “우리 사회에는 저임금으로 일자리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처럼 불안정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기초한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11월 2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와 교외의 네 카운티의 주민들이 재난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실업수당보다 더 광범위한 근로자들을 보조한다. 즉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영업, 택시운전사, 노점상들까지도 지원한다.

뉴저지 또한 10개 카운티의 주민들이 재난실업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코네티컷은 4개 카운티와 마산투켓 피콧 인디언 보호구역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뉴욕 노동부 대변인은 허리케인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반드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그 신청자격이 유연하고 사안별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통근시간이 길거나 그 비용이 더 든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택시 운전사 이베짐 오키 씨는 지난 금요일 버스를 장시간 기다리는 대신 브룩클린에 있는 집에서 맨해튼까지 택시를 이용했는데 비용이 50달러(한화 약 55,000원)가 들었다. 그리고 “기를

을 채우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물리적으로 출근해야만 하는 근로자들에게 통근만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자치구와 교외에 있는 커피 전문점들은 노트북을 들고 업무 접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선인터넷을 찾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샌빌러스 씨는 지난 목요일인 11월 1일 5시간 일하기 위해 8시간을 출퇴근 시간에 소비하였는데, 이를 고려하면 임금은 실질적으로 시간당 4달러(한화 약 4,400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밖에 직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켈시의 식량배급소에서 만난 꽃배달원 마이크 사무엘 씨(55세)는 5일간 소득이 날 아간 것을 쓰라려 했다. “일도 못하고, 텃돈 못 받고, 임금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뉴저지 웨스트 오렌지에 사는 무타 프라더 씨(49세)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뉴욕의 화학공장이 물에 잠겨서 3일 동안 출근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목요일 공장 청소를 하면서 잠깐 일을 하긴 했지만, 피해를 입은 자기 집 지붕을 어떻게 고칠지가 막막하다고 했다.

프라더 씨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지붕을 수리하는데 7,000달러(한화 약 773만 원) 정도가 들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돈은 벌기 힘들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브룩클린의 클린턴 힐 구역의 놀이터에서 만난 데미언 카니 씨는 둘째 아기를 품에 안고 첫째를 그네에 태워주면서 특별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카니 씨는 전기가 나가서 문을 닫은 포도주 유통업체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이 태풍이 일종의 유급휴가이고, 요리와 집안청소 등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카니 씨는 고용주가 “걱정 말라”고 했다고 한다.

연방노동법은 재난이 닥쳤을 때 시급 근로자들보다 봉급 근로자들을 더 보호한다. 직장휴업이 1주일을 넘지 않으면 고용주들은 임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그 기간 동안 근로자들을 (유급)휴가 보내더라도 임금은 계속 지급해야 한다. 반면 직장이 휴업하면 시급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물론 직장이 영업할 때 봉급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보수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직장마다 정책이 다르고, 일부 시급 근로자들은 운 좋게 임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6살 된 손녀와 함께 브룩클린에서 맨해튼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카산드라 윌리엄 씨(54세)는 3일 동안 가정부로 일하는 집에 가지 못했지만 그 집에서 임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한다. 중부 맨해튼의 나이키 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24세의 티나쉬 마코츠 씨 역시 결근한 날도 임금을 받는다고 말한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한 보모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을 거라고 한 반면, 다른 이는 결근한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는 받지 못할 거라고 말하였다.

자신을 단지 윌리엄. S.라고 하는 금융가에서 일하는 한 근로자는 맨해튼에 갈 필요가 없지만 자신의 상사가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가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른 이는 멀리 퀸스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고 일당 40달러(한화 약 44,000원)를 받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첼시에서 일하는 미용사 앤서니 하웰 씨(42세)는 미용실이 그의 고층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전기가 나갔기 때문에 일하러 나가지 못했다고 말한다.

“잔인한 점은 이 바닥이 이렇다는 것이다. 일하지 않으면 돈도 없다”라고 그는 성토했다.

- 출처: 뉴욕타임스, 2012년 11월 2일자, ‘For Some After the Storm, No Work Means No Pay’

유럽

스웨덴 : 기업들, 잇따른 감원 계획 발표

스웨덴은 다른 유로권 국가에 비해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다수의 스웨덴 기업들로부터 감원 계획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10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제조업, 기계업, 자동차산업, 건설업 각 분야에 걸쳐 연일 계속 감원 계획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스웨덴 국영 고용센터의 한 담당자는 감원 계획이 이렇게 연일 계속 발표되는 일은 드문 현상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의 감원 바람이 일시적 것인지 아니면 더욱 심각한 불경기의 탓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 경제전문가들은 가을 초반기에 경기가 약간 후퇴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현재 각 기업들의 감원 계획 발표는 이런 예측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스웨덴 제조업의 경기는 계속 하강하고 있는데 그 수준은 2009년과 같다고 한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경기도 하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비스업 구매 담당자 지수가 8월에는 50.7포인트였는데 이 수치가 9월에는 47.3포인트로 떨어졌다. 50 포인트를 기준으로 경기가 성장 추세 또는 하강 추세인지가 결정되는 것을 볼 때 9월의 수치는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제조업체들의 감원 계획 발표는 스웨덴 주요 건설

업체들의 감원 발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10월 6일 스웨덴 신용조사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부도 업체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한다.

스웨덴 금속노조연맹 소속 임금·단체협상 대표자가 최근 전국 사업장 방문을 실시하였는데 많은 사업장에서 특히 제조업과 철강업체 노동조합들이 앞으로의 경기회복에 상당히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고 한다. 보통 불경기는 3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는 파견업체의 직원 감소, 두 번째 단계에는 한시 고용계약 근로자들의 인원 수가 감소되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장기 고용계약 근로자들의 인원 수가 감소된다. 최근 상당수의 기업들이 세 번째 단계의 인원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체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스웨덴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기 후퇴로 스웨덴 기업체에 대한 주문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의 협상 대표자는 기업들이 인원 감축을 단행하는 대신 추가 교육훈련을 늘리기를 원하고 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또 다른 중요한 산업인 임업도 경기후퇴의 양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임업 전문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임업이 후퇴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건축업의 경기



가 거의 정지 상태여서 목제품 주문량이 중단된 상황이며, 또한 스웨덴 통화 크로나의 강세로 유럽시장에 대한 목제품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이며 수출시장 모두 앞으로 경기회복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제지, 입업 분야의 노동시장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현상이 조속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 출처: Svenska Dagbladet, 2012년 10월 6일자, 'Varselvåg sveper in över landet'

스웨덴 : 국영고용센터, 노동시장 약화 예상

스웨덴의 주요 경제 및 노동시장 지표가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2013년도 노동시장 지표가 지난 여름 고용센터가 예측한 수치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영직업알선소의 노동시장 전망을 담당하는 부서에 의하면 현재의 경기하락세는 2008~2009년의 금융위기 때보다 심하지는 않지만 대신 경기하락 추세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된 유로화의 위기가 종료되려면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현재 유럽의 경기하락세는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스웨덴의 구매 담당자 지수와 스웨덴 경제연구소가 발표하는 각종 경기 지표가 스웨덴의 각종 경제활동이 약세인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또한 노동시장의 약세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감원 예고 수치도 증가하였으며, 구인을 하는 수치도 감소했다. 또한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동시에 기업의 채용 계획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이 앞으로 노동시장의 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국영 고용센터는 금년의 실업률이 7.7%

까지 올라갈 것이고, 2013년에는 이보다 조금 더 올라간 7.8%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금년도 전체 고용인원은 약 5,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5,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상태를 감안할 때 2013년의 실업률과 고용인원 증가 예정 수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2013년 9월에 감원 예고 수치는 7,300명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3년간을 볼 때 가장 높은 수치이다. 10월에도 감원 예고 수치는 계속 증가했는데 이런 사실은 고용센터가 11월 14일에 발표할 10월의 노동시장 통계에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국영 고용센터는 앞으로도 감원 예고 수치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로 지역의 경기 하강이 지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웨덴 경제 및 노동시장은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 출처: Svenska Dagbladet, 2012년 10월 30일자, 'Arbetsförmedlingen spår svagare arbetsmarknad'

영국 : 닉 클레그 부총리, 연금 혜택과 노령자 혜택 감축 방안 구상 중

현 부총리인 닉 클레그는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집을 사게 될 때 부담이 줄어들도록 부모들 세대에서 연금 혜택을 줄이고 이를 통해 담보 보증금(mortgage deposit)의 기반을 마련하여 집값을 보조하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연금의 평균 가치는 많이 하락하였으며, 현재의 확정 기여형 연금은 주식시장의 가치 하락과 함께 낮은 이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연금은 연금 생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클레그 부총리의 감축 방안이 도리어 집값을 올리고, 부자 아빠를 둔 젊은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또한 클레그 부총리는 복지 예산이 정부의 예산 감축을 위한 노력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2015년의 일반 선거 후에 혜택을 축소시키는 것을 구상 중이다. 그 예로써 그는 노령자의 각종 수당 및 혜택(age related universal benefit)을 비판하였다. 자유민주당은 노령자의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인데 이로 인해 겨울철 연료 수당, 무료 TV 시청, 무료 승차권 이용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당 각료인 데이비드 로스는 닉 클레그의 방안에 대해 연금 생활자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밝히도록 권유할 권리가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즉, 정부가 연금 생활자들의 재산 공개 후에 소유한 집의 가격, 저축액 등에 따라 부유층으로 분류된 연금 생활자들에게 겨울철 연료 수당이나 무료 승차권 등의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구상 중인데 이를 반대하는 발언이다. 부유한 연금 생활자들에게

서 이 수당들을 포기하게 한다고 해서 그 결과로 큰 결실을 얻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연금 생활자들 중에 수당이 필요없는 사람들, 이를 떠먼 부자들이 생각보다 드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다른 자유민주당 각료들은 더 서둘러 이 안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민주당의 돈 포스터는 정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연립정부는 2015년의 일반 선거 이전에 이 안을 일찍 시험해 보아야 한다며, 그는 스스로 본인과 같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200파운드(한화 약 36만 원)에 달하는 겨울철 연료 수당을 받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제안은 정당의 이념과는 일치하지만, 정부보다는 정당의 이념이기 때문에 연합정부하에서는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개혁안이 발효되려면 아마도 2015년의 일반 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클레그는 무료 승차권, 겨울철 연료 수당과 같은 노령자 혜택이, 부유한 연금 생활자에게도 당분간은 적용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에 관한 논의는 현 회기 이후에 다시 열릴 것이다. 그는 영국에 있는 수많은 부자들이 그들보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본인의 혜택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의지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BBC 라디오와의 대답에서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선거 이후에 복지수당의 감축이 있음을 미리 알렸는데 이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함이다. 결국 보수당은 현 국회에서 노령자들의 혜택을 유지하기로 선언하였으나 1백만 파운드(한화 약 18



억 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의 자산을 가진 이에게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 자산의 종류는 집, 연금 혹은 현재의 수입이다. 담보 보증금을 마련하려는 계획은 연금 생활자들의 거치식 연금(lump-sum)에서 25%가량을 빌려주는 형태로 구상중인데, 재무부 장관인 대니 알렉산더는 연금의 기여분이 꾸준히 적립되어 연금 대상자가 은퇴 연령

이 될 때쯤에는 거치식 연금이 완성되어 있을 것이라며 이 제도를 옹호하였다.

- 출처: 1. Guardian, 2012년 9월 25일, Nick Clegg's pension property plan is just plain potty
- 2. BBC news, 2012년 9월 25일, 'Lib Dem conference: 'Millionaire' pensioners may face benefit cuts'

영국 : 대학 절반 이상, 청소근로자에게 생활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절반 이상의 대학들이 학생들에게는 2012년 10월 학기부터 전년보다 3배나 오른 연간 최대 9천 파운드(한화 약 1,600만 원)의 등록금을 내게 하면서 청소 및 식당 근로자들에게는 생활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대학은 정확히 시간당 최저임금(2011년 10월~2012년 9월 6.08파운드(한화 약 1만 800원))만 지급하고 있었다.

일간 미러(Mirror)지의 9월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사대상 103개 대학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의 대학이 이들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고 적절한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는데, 런던의 시간당 임금은 8.30파운드(한화 약 1만 5,000원), 런던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7.20파운드(한화 약 1만 3,000원)이다.

의료서비스, 지방정부, 학교 등 주로 공공부문 근로자로 조직된 유니슨(UNISON, 조합원 130만 명)은 “모든 고등교육기관은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현재

청소 및 식당 근로자, 도서관 사서, 기술자 등 3만여 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학교들은 이들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올해도 1%가량의 임금인상률만 적용했는데, 소매물가지수가 2.9%대임을 감안하면 이는 실질임금 저하를 의미한다. 유니슨은 저임금 근로자들은 연립정부가 집권한 지난 3년 동안 실질적으로 10% 이상의 임금저하를 경험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유니슨은 생활임금 투쟁이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만약 여전히 주요 대학들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명단을 공개(name and shame)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유니슨 고등교육 책임자인 마이크 쇼트는 “많은 영국 주요 대학들에서 근로자들이 생활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생활임금은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적정 수준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생필품, 즉 음식과 연료 등의 가격이 물가상승률 평

균보다 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재 그들의 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마지막 보루”라며 “사용자들은 더 나은 제안을 내놓아야 하고, 우리는 그들이 그럴 여력

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 출처: Mirror, 2012년 9월 26일자, ‘Paid a pittance’: More than half of top universities pay their cleaners and cooks less than Living Wage’

영국 : 최저임금 10월부터 1.8% 인상... 시간당 6.19파운드

10월부터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6.19파운드(한화 약 1만 1,213원)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6.08파운드)보다 1.8% 인상된 것이다. 하지만 이 인상폭은 21세 이상 성인들에게만 적용되고, 그 이하 연령층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동결됐다. 18~20세와 16~17세 학교 졸업자들의 최저임금은 각각 시간당 4.98파운드(한화 약 9,000원)와 3.68파운드(한화 약 6,700원)로 지난해와 같다. 다만 견습생들에 대한 최저임금은 1.9% 인상된 2.65파운드(한화 약 4,800원)가 적용된다.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영국노총(TUC)은 최저임금의 낮은 인상률과 청년층들에 대한 동결 조치는 저임금 근로층이 실질적인 임금삭감에 시달리게 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TUC는 10월 1일 내놓은 논평에서 “물가상승률이 2.9%에 달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선에

있는 약 94만 명의 근로자(그 중 3분의 2는 여성)들은 그들의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데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렌든 바버 TUC 사무총장은 “정부가 일부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거부한 것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성인들에 대해서만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1.8% 인상을 결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임금삭감에 허덕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TUC는 최저임금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데 이를 최저임금 동결의 이유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출처: TUC, 2012년 10월 1일 보도자료, ‘New minimum wage rate is a real terms pay cut, says TUC’



영국 : “노동당은 신자유주의와 결별하라”... 노동당 전당대회서 당-노조 갈등 부각

당수인 에드 밀리반트와 예비내각 재무장관인 에드 볼이 노동당 연례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비난에 직면했다. 노동조합 간부들은 노동당 리더들이 근로자들이 처해 있는 곤궁한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공공부문 근로자들에 대한 계속되는 임금동결을 지지하는 등 보수-자민 연립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노동당 연례 전당대회의 첫 날인 9월 30일, 이미 올 초에도 제기됐던 이 이슈가 다시 등장했다. 공공부문 중심의 노조인 유니손(UNISON, 조합원 130만 명)의 리더인 데이비드 프렌티스는 에드 볼이 내린 결정에 대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분노를 전했다. 볼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라는 근거로 연립정부의 공공부문 임금동결을 지지했다.

프렌티스는 정부의 긴축 아젠다를 둘러싼 경제적 대안에 관한 의견을 두고 발언하던 중 “나는 공공부문의 임금을 더 내리는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당신들은 틀렸다. 정서적으로도 틀렸고, 경제적으로도 틀렸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많은 근로자들은 임금동결이 아니라 10%가량 임금이 삭감된 효과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은 동결됐지만 식료품, 기름값, 집값(렌트비)이 엄청나게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자리 축소는 이어지고 있다. 이미 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프렌티스는 “근로자들은 노동당이 연립정부에 반대하고, 연립정부 정책에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발언하고 근로자

들을 위해 행동하기를 바란다”며 “노동당은 평범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는 새로운 경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최대노조인 유나이트(UNITE, 조합원 200만 명)의 리더인 렌 맥클러스키 또한 노동당이 더 이상 일자리와 임금에 관한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당이 다음 선거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급진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당수인) 밀리반트는 임기 동안 노동당이 지난 노동당 정부 노선은 물론 현 연립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과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당원들,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된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은행 개혁 필요성에 대한 안전 관련 발언에서 현재 노동당의 리더십이 블레어주의(Blairite)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 쥐어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패망을 가져오는 길이고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는 길이다. 지금은 노동당이 신자유주의와 최종적으로 결별할 때”라고 강조했다.

에드 볼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다. GMB(조합원 60만 명)의 리더인 폴 케니는 에드 볼이 지난 정부 각료로 있을 때 만들었던 각종 금융규제, PFI(민간자본에 의한 공공시설 사업), 공공민간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등을 거론하며 “정책적 오류”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나이트, 유니손, 지엠비 등 이 3개 노조는

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노조 1~3위를 차지하는 곳들로, 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면서 막대한 금액의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출처: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 2012년 10월 1일자, 'Labour out of touch over public sector pay freeze, say union leader'

영국 : 성적 우수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는 계획 검토 중

우수한 성적의 장학생을 사회복지(social work)의 일선에 일찍 참가시키는 계획이 현재 검토 중이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IPPR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수한 졸업생들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교사가 되는 Teach First 모델이 성공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IPPR 리포트는 지원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업적인 측면에서 혁신적인 계획을 요구하며 일선에서의 혜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부족한 상황이고, 우수한 졸업생을 모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 계획은 '전선(Frontline)'이라고 명명되었으며, 영국의 계획 입안자들은 이 계획이 현재의 열악한 사회복지사의 현황을 개선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Teach First는 독립 교육 자선단체로서, 가난하거나 가정환경이 열악한 어린이들에게 대학 졸업생을 교사로 모집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Teach First의 홍보대사인 조쉬 맥앨리스터는 지금이 직업을 바꿀 절호의 기회라고 언급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가장 중요하고 또한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가 여전히 가장 인기 없는 직업으로 남아 있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덧붙여 새로운 계획은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계획에서 성적이 우수한 졸업생들은 Frontline에 채용될 것이다. 일단 채용된 후에는 그들은 집중적인 여름 학기에 참석하고, 대학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직업교육으로 대체하게 된다. 요구 조건을 모두 이수한 후에 채용자는 1년 후에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그 후에는 지방정부에서 일하게 되며 그 기간 동안 추가로 교육을 받게 된다.

전 정부의 정책 고문이자 교육부 장관이었던 Teach First의 후원자인 앤드류 아도니스경은 본인 또한 어렸을 때 사회복지사의 혜택을 입었다며, 사회복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무수히 많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없을지 모르지만 사회복지사는 사회와 아이들 사이에 놓여진 '외나무다리'와 같다고 그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Teach First가 출범했을 때 성공 가능성에 대해 많은 비판과 회의가 있었지만 Teach First는 그 비판들을 극복하였고 Frontline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이 사회에는 너무 많으며, 그 아이들은 응당 받아야 할 보호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Teach First의 책임자인 제임스 웨스트헤드는 교실 안에서의 경험만큼이나 학교 밖에서 어린이의 삶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한편, 아도니스 경의 발언에 적극 동의하며, 자신단체들의 경험에서 얻어진 교훈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2002년에 시작한 Teach First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점점 교사의 모집을 늘리고 있다. 1,000명의 새로운 지원자가 올 9월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며 2013년까지 1,14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약 1,700명의 Teach First 직원이 350개의 잉글랜드의 7개 지역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

‘사회복지로 올라서기(step up to social work)’라고 불리는 졸업생 계획은 졸업생에게 1만 5천 파운드(한화 약 2,700만 원)를 제공하며 사회복지 석사학위와 실무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 직업은

2007년에 일어난 런던 북부의 피터 코벨리의 죽음, 속칭 ‘baby P’라고 불리는 사건의 발생 이후에 조명받기 시작하였다. 생후 17개월의 피터 코벨리는 부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숨졌는데, 이 아기의 담당 사회복지사는 아기가 폭행당한 증거를 발견하였음에도 아기를 집에서 안전한 복지시설로 빨리 옮기지 않아 크게 비난을 받았다. 이 아기는 친모의 남자 친구와 친모에게서 학대를 받아 50군데 이상의 상처를 입고 8개월 이상 입원하였다가 끝내 숨졌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 보호시설 및 서비스의 확충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 계기가 되었다.

• 출처: BBC news, 2012년 10월 4일자, ‘Fast-track high-fliers’ into front-line social work

영국 : 근로자 주식 소유와 노동권 박탈 맞바꾸기?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나 정리해고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자신들이 일하는 회사의 주식을 일부 받고, 이렇게 나눠받은 주식으로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받는 방안이 정부에 의해 제안되었다. 재무장관인 조지 오스본 씨는 지난 10월 8일 보수당 연례 전당대회에서 고용법 관련 급진적인 제안(Shares for rights scheme)을 했다.

오스본 재무장관은 “회사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주식을 일부 지급하라. 그리고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나 정리해고에 관한 권리를 ‘주식 소유권’이라는 새로운 권리와 교환하라. 그렇다면 정부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으로 만들어낸 이득

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 새로운 종업원주주들에게 0%의 자본이득세를 적용할 것이다. 주식을 취득하고 당신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소유주가 되어라”라고 말했다. 덧붙여 오스본 장관은 “이 제안은 특히 새로 시작하는 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급진적 제안에 대한 반론이 거세다. 영국노총(TUC)은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논평했다. TUC는 “이 제안은 내용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갖는 파급효과를 더 노린 것 같아 보인다”며 “우리는 정부 제안이 비크로프트 보고서에 의해 주도된 반노동자정책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

해 더욱 경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들에 부여된 노동권이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반발도 제기된다. 영국 공인인력개발연구소(CIPD) 고용관계 어드바이저인 마이크 에모트에 따르면,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덜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 고용규제가 중소기업들의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근거는 거의 없다. 특히 정부에서 발간된 보고서도 기업들이 근로자들 채용을 단념케 하는 10대 규제에 부당해고에 대한 규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CIPD의 에모트는 “근로자들이 불확실한 재정적 이득과 근원적인 노동자 권리를 맞바꿈으로써 얻을 게 거의 없고, 사용자들 역시 이종의 노동시장(주식 소유-비소유 근로자)을 창출함으로써 얻을 게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본 노동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주식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이 소기업에서 일하게 될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일지 미지수”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기본 고용권을 포기 하라고 근로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과연 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의욕 넘치는, 수행 능력이 뛰어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상호소유 기업들의 성공사례가 보여주듯이, 단지 근로자에게 주식의 일부를 주는 것보다 높은 신뢰, 높은 수준의 몰입과 동기화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문화적 유인 등이 기업활동의 성과를 가능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 소유(우리사주)는 일자리의 불안정성 증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훌륭한 매니지먼트에 의해 가장 잘 발현될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조직’인 Working Families의 대표인 사라 잭슨 역시 사용자들은 새로운 방식의 계약을 고려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노동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주식을 얻는 노동계약을 쓰게 하는 것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높은 수준의 동기부여, 몰입도를 가진 근로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무장관인 조지 오스본은 이날 연설에서 이 정책을 입안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 온 아드리안 비크로프트 씨에게 특히 고맙다고 말했다. 비크로프트는 벤처캐피털 경영인으로 현 보수-자민 연립정부의 정책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데,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동 촉진이 최우선 과제라는 신념을 가지고 각종 기업 및 노동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그는 올 상반기 소규모 사업장 해고제한법 적용제외(no-fault dismissal), 인력감원 시 사전 조정 기간 축소, 부당해고 근로자 급여보상 상한선 도입, 기업 인수·합병 시 자동 고용승계 규정 개정 등을 뼈대로 하는 고용법 개정방안 등을 주도해 왔다.

- 출처: 1. 피플매니지먼트, 2012년 10월 8일자, ‘Chancellor proposes ‘John Lewis model minus employee rights’
- 2. 영국노총(TUC) 보도자료, 2012년 10월 8일자, ‘Chancellor’s small business exemption plans unlikely to have much impact’



영국 : 신규 대졸자 3분의 2 취업... 지역별 불균형 여전

신규 대졸자의 약 3분의 2가 일자리를 얻었으나 이들 일자리가 영국 전역에 고루 퍼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다. 고등교육경력개발단(HECSU) 자료에 따르면, 신규 졸업자들의 고용률은 61.8%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지난해(62.2%)와 견줘 약간 떨어졌다. 이 수치는 경제상황 악화와 공공부문 예산 삭감에 따른 추가적인 일자리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걱정했던 수준보다는 낫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대졸자 일자리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2010/11학기 졸업생의 21%가량이 취업을 한 런던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반면, 북동부 지역은 3.8%에 그쳤다. 런던에서 일하는 많은 대졸자는 비즈니스와 금융계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 HECSU는 “일자리가 영국 전역에 걸쳐 고루 퍼져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서 영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도 “모든 일자리가 런던에 있고, 다른 지역에는 대졸자들을 위한 일자리가 거의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HECSU에 따르면, 그레이터 런던 내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시는 런던 안에서도 마케팅, 판매 등의 직종에 취업하려는 대졸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가

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 하지만 런던 밖에 있는 허트포드셔, 서레이, 옥스포드셔 그리고 맨체스터 또한 이들 직종 대졸자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잘 알려진 곳들이었다. 옥스포드셔와 캠브리지셔에는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려는 대졸자들이 많이 채용돼 있었고, 머시사이드, 서레이, 노르포크 또는 에버딘은 상당한 수의 대졸자 고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IT 졸업자들은 영국 전역에 좀더 고루 퍼져 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런던 시와 웨스트민스터 시가 IT 졸업자 일자리를 시작하는 가장 일반적인 곳으로 남아 있었다. 런던을 제외하고서는 서레이, 캠브리지셔, 램프셔, 허트포드셔, 벨파스트, 타인 등이 컴퓨터 관련 일자리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곳이었다.

HECSU는 “불경기 동안 만들어진 일자리의 많은 수는 규모가 더 작은 기업에서였다. 구직활동을 할 때 대졸자들은 대규모 기업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보고서는 비록 어려운 경제상황이라 하더라도 졸업자들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실제 그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만큼 여전히 기회는 많이 있다”고 밝혔다.

• 출처: 피플매니지먼트, 2012년 10월 11일자, 'Graduate jobs market stable but roles 'not spread equally'

프랑스 : 고용안정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첫 번째 협상 시작

지난 10월 4일, 고용안정화를 둘러싼 첫 번째 노사협상이 시작됐다. 다섯 개의 노총 대표와 세 사용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이번 협상은 구체적인 진전없이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올랑드 대통령은 노사 양측에 ‘기업에게는 유연성을, 근로자들에게는 보다 높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역사적인 합의가 올해 안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첫 협상에서 노사 양측은 현재 노동법에 대한 각자의 의견만을 교환했다. 노동조합 CFDT의 파트릭 피에론(Patrick Pierron)은 이번 협상이 “지속적인 대화를 위한 첫 번째 만남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사는 향후 협상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양측에 네 가지 사항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노사는 향후 ‘불안정 노동문제’,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개선책(부분실업, 경쟁력-고용 협정)¹⁾, ‘업무 및 고용 변동에 관한 전망(예측)’, ‘대량(집단) 해고 절차 개선’ 등의 주제에

대해 차례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반나절에 한 주제씩, 오는 4주 동안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게 되며, 실질적인 협상은 11월 초부터 시작된다.

첫 번째 회담을 마친 노사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노동조합 FO의 고용 담당인 스테판 라디(Stéphane Lardy)는 “이번 협상만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유연화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30년간 진행된 것이며, 메데프(Medef = 가장 영향력 있는 사용자단체)는 여전히 연수기간²⁾을 늘리려고 하고, 해고 보상금의 경우 상한선을 정하려 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동조합 CGT의 아니에스 르 보(Agnès Le Bot) 역시 “메데프는 더 많은 해고의 자유를 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마치 현재 우리나라에 이미 300만 명의 실업자가 존재하는 것을 모르고 진행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1) ‘일자리 보존계획’(Plan de sauvegarde de l’emploi)은 1989년 처음으로 제정되어, 노동법전에 삽입된 대량(집단)해고 제한 조항이다. 사회계획 및 PSE로 불리며,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은 2002년 사회근대화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50인 이상의 기업이 경제적인 이유로 10인 이상의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고용보존계획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해고가 불가피한 직원들의 재취업을 위한 계획 등 법이 정한 다양한 조건과 요소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 ‘경쟁력과 고용에 관한 협정’은 사르코지 정부가 임기 말에 추진한 계획으로, 공식적으로는 이미 사라진 표현이다. 주된 내용은 주 35시간제 폐지와 더불어, 임금과 노동시간과 같은 노동조건을 개별 기업이 각자의 조건에 맞게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정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정식 계약 전, 사용자가 구직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갖는 임시 고용 기간. 직업군에 따라 최대 4개월까지 허용되지만, 정규직의 경우 일반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2개월로 정해져 있다.



한편 메데프의 협상자로 나선 파트릭 베르나스코니(Patrick Bemasconi)는 '각각의 진지한 목소리'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우리는 정규직이 고용 기준이 될 것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하지만 이는 채용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하며, "경쟁력과 고용에 관한 협정'이 '일자리 보존계획'을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제로 남아 있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 출처: 1. Le Monde, 2012년 10월 4일자, 'Sécurisation de l'emploi : un premier tour de chauffe pour les syndicats et le patronat'
- 2. Les Echos, 2012년 10월 4일자, 'Premier «tour de chauffe» pour la négociation sur l'emploi'

아시아

일본 : 렌고, 조합원 1,000만 명을 향한 조직화 방침 결정

일본 노동조합 최대 전국조직인 렌고는 향후 8년 간에 걸쳐 현재 조합원 약 67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1,000만 명 렌고 실현 플랜’을 10월 3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렌고의 고가 회장은 비정규직이 전체 고용근로자의 35%를 차지하고, 연수입 200만 엔(한화 약 2,780만 원) 이하밖에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1,100만 명을 넘어 “사회의 불안전화가 허용 범위를 넘는 상황에 빠져 있다”고 강조하고, “지금이야말로 두터운 중간층을 기반으로 한 사회의 재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공정/균등대우, 세금/사회보장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전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1,000만 명 렌고 실현 플랜’을 실현하기 위해 2013년도 활동계획으로서 의식개혁, 대응부서의

신설, 조직화 타겟의 공유화를 내걸었다. 또한,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회운동으로서 비정규직 동료 만들기인 <현장(직장)에서 시작하는 운동>의 사례집을 작성하여 좋은 사례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산별연맹은 2013년 1월까지 조직화 대상이 되는 모든 미조직 기업, 산별연맹 미가입 노조를 리스트업한 ‘확대 대상 리스트’ (가칭)를 작성하도록 하고, 렌고는 이를 취합하여 전 산별연맹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지역본부도 2013년 6월까지 ‘확대 대상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조직 확대방침이 어느 정도 실현될지 주목된다.

- 출처: 일본노동정책연구 · 연수기구 홈페이지, 2012년 10월 5일자, ‘1,000万組織に向けた組織化活動の今後の対応など確認/連合の中央委員会’

일본 : 여성 관리직 4.6%에 그쳐, 일본 기업 동우회 ‘심각하게 낮은 수준’으로 분석

경제동우회가 최근 조사 발표한 기업 앙케이트조사에 의하면 일본 기업은 여전히 유능한 여성 인재를 관리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과장급 이상 관리직에 등용

된 여성의 비율은 불과 4.6%에 그쳤다.

동우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여성 관리직 비율이 모두 3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심각하게’ 낮은 수



준"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번 조사는 회원 기업 중 창립 40주년 이상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219개 회사가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일본 국내에서는 41%, 해외거점에서는 35.6%를 차지했다. 그러나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에서는 여성의 고용은 전체의 5% 이하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

집행간부와 임원(중역) 등 '의사결정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더 낮은 수준인 2.7%에 그쳤다. 앙케이트조사에서는 여성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행정에 의한 교육지원

의 인프라 정비 및 강화 실시'가 1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무의 명확화, 남녀차별이 없는 공정한 평가, 대우제도의 확립'이 9.8%를 차지하였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여성 관리직의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동우회는 "기업이 솔선하여 달성해야 한다"는 방침하에 각 기업에 목표치 도입과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호소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닛케이산교신문, 2012년 10월 18일 조간 19페이지, '女性管理職、4.6%どまり、日本企業、同友会「極端に低い」.'

중국 : 농민공, 대규모 감원 사실무근

최근 일부 중국 언론들은 동남 연해지역에 소재한 수출기업들이 주문량 감소로 인해 농민공들을 대규모로 감원함에 따라 농민공의 '귀향붐(返乡潮)'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인민일보(人民日报)는 저장(浙江), 광둥(广东) 지역에서 대외무역 기업과 농민공을 대상으로 수출기업의 생존 상황 및 농민공의 감원 상황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 지역에서 대규모 감원은 없었다. 예를 들어, 광둥성 후이저우시(惠州市) 인사국 예전쑤(叶振鑫) 부국장은 이 지역의 경우, 연초 인력부족이 10만 명에 달했지만, 시(市)정부의 노력으로 현재 인력부족은 3만 명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예 부국장은 고용 규모, 인력부족뿐만 아니라 농민공의 사회보험 환

급 상황 등을 살펴봐도 이 지역에서 농민공의 '귀향붐'은 없었다고 밝혔다. '중카이 고급신기술 산업개발지구(仲恺高新技术产业开发区)'는 후이저우시에서 농민공이 가장 많은 지역 중의 하나이며, 2,000여 개 수출기업에서 20만 명 이상이 일하고 있다. 이 지역의 사회사무국 리민징(李海景) 부국장은 올해 음력설을 전후해서 기업들이 보고한 노동력 공급부족은 3만 명에 달했지만, 올해 중반기에 와서는 인력수급이 안정세로 돌아섰고, 생산이 성수기로 접어든 이후에는 많은 기업에서 계절성 노동력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 기간 일부 노무파견회사 및 기술학교의 실습생이 부족 부분을 메워 구인난을 완화시켰다고 밝혔다. 후이저우와 인접한 동판시(东莞市)는 주강삼각주 지역에

서 농민공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어립잡아 1천만 명 이상이 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현황으로 보면, 농민공의 구직난과 기업의 구인난이 병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은 기술자, 고급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와 고급 기능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광둥 지역의 한 리쿠르트 업체에서 획득한 정보에 의하면, 현재 광둥 지역에 대규모 감원은 없었고, 다만 일부 기업의 생산라인이 축소되면서 꼭 필요한 인원만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저우 철도그룹(广铁集团)은 지난 7월 1일부터 7월 31까지 광저우 철도가 수송한 여객은 2,287만 3천 명으로 동기 대비 4.79% 증가했는데, 창사(长沙), 광저우(广州) 등 대학교가 많이 소재한 도시의 학생 여객이 크게 증가했고, 철도 운행에서만 보면 대규모 농민공의 귀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광둥이동, 광둥전신 등 통신회사에 의하면, 2012년 1~7월까지 농민공이 선호하는 핸드폰 요금제의 사용자 수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업종, 예를 들어 건축업에서는 감원이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둥성 통계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분기와 전년도 말을 비교하면, 광둥 지역 건축업의 취업자 수는 4.4%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건축업 취업자 수의 감소는 부동산 억제정책과 관련 있지만, 이것은 주삼각주 고용의 일부뿐이고, 전체 고용 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항저우시(杭州市) 인력자원시장 관리1처 씨양밍화(向明华) 처장은 고용시장에는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인력자원시장이 추천한 고용 횟수는 78,500회로 지난해보다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의 통계에 의하면, 상반기 취업형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도시지역 신규 취업자 수는 유사 이래 가장 좋은 상황이다. 일부 영세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시적인 조치로 감원을 하고 있지만, 중국 전체를 모니터한 결과 보편적인 대규모 농민공 감원과 귀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人民网网站, 2012년 8월 24일, ‘农民工被大规模裁员了吗’

중국 : 장쑤성 화이안시 일부 대학 팍스콘 실습 강요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iPhone5를 생산하는 팍스콘 공장에서 강제적인 실습을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무역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실습을 하지 않으면 학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짜양수(江苏) 화이안(淮安)시에 소재한 일

부 대학들이 학생들을 팍스콘 공장으로 보내 강제적인 실습을 강요한 것이 폭로되었다. 학생들은 화이안시의 적지 않는 대학들이 신학기에 학생들을 단체로 팍스콘 공장에 보내 실습을 강요했고, 만약 가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찌양수성(江苏省) 교육청에서 획득한 소식에 의하면, 이번 사건에 여론이 집중된 이후 팍스콘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학생들은 이미 모두 학교로 돌아갔고, 이 가운데 찰양수성 소재 대학의 학생은 8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일, 찰양수성 재경직업기술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웨이보(微博, 중국판 페이스북)에 “개학하자마자 팍스콘에 가서 2개월간 인턴생활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이유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팍스콘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 급히 1만 명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이 끌려가서 인턴을 해야 한다고 한다. 중요한 건 우리의 전공이 전자나 기계가 아니라 회계, 법률, 공상관리라는 점이다”라고 폭로했다.

또한 중앙라디오 <중국의 소리>의 보도에 따르면, 화이안시에 소재한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팍스콘 실습에 참가했고, 현재까지 확인된 학교는 찰양수 재경직업기술대학 이외에 하이안시 방송TV 대학, 찰양수 식품직업기술대학, 화이안 정보직업기술대학 등이다. 화이안 방송TV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2011학번의 17세 학생은 8월 27일 신학기 등록 이후 팍스콘 공장에서 1개월간 실습할 것을 통보받았다. 이 학생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일 오후 팍스콘 공장으로 보내졌고, 신체검사와 간단한 교육을 받고, 그와 동기생들은 생산라인에 투입되었으며, 주로 iPhone5의 데이터 선을 생산했

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서는 대략 1,500여 명의 학생들이 팍스콘으로 보내져 실습을 강요받았는데, 이들의 전공은 유아전공, 기전, 회계, 설계 등이라고 밝혔다. 당해 지역 학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공장에 도착한 후 번체자(대만에서 쓰고 있는 중문)로 쓰여진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계약서를 보고 월급이 1,550위안(한화 약 29만 원)인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다수의 학생들은 공장에서 그들은 하루 8시간 일했고, 1시간에 10분간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며, 45분간의 점심시간 동안 식사와 휴식을 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화이안 팍스콘 공장에 자주 구인난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8월 15일 오후, 화이안시는 팍스콘 구인협조회의를 열어 팍스콘 구인난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다. 화이안시 천타오(陈涛) 부시장은 회의에서 팍스콘이 현재 처한 어려움과 문제에 대응하여 화이안 경제기술개발구와 시(市)의 관련부문은 이미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일찍이 2009년 화이안시 정부는 구인서비스 사무실을 열었다. 화이안시의 주요 간부들은 팍스콘의 구인난은 화이안시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고, 구인난이 해결되지 못하면 화이안시의 투자 이미지에 막대한 손해를 미친다고 밝혔다.

• 출처: 新京報, 2012년 9월 7일, ‘淮安部分院校强制学生富士康实习’

중국 : 2011년 중국 임금보고 - 국민소득에 주민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하락

주민소득이 두 자릿수로 증가했지만,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14일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노동임금연구소가 제7차 신인력논단에서 발표한 '2011년 중국 임금보고(2011中国薪酬报告)'에 따르면, 중국 주민소득의 증가보다 재정수입과 기업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주민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 국가통계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중국 도시지역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지난해보다 명목상 14.1% 증가했지만, 인플레이션 요소를 제거한 실질증가율은 8.4%로 GDP 증가율보다는 0.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가통계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해 추산한 결과, 지난해 중국 공공재정수입은 10억 3,700억 위안(한화 약 1,943억 원)으로 24.8% 증가했고, 증가폭은 도시지역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명목증가폭의 1.76배,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 명목증가폭의 1.39배였고, 동기 기업소득 증가폭은 약 20% 내외로 주민소득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노동임금연구소 마샤오리(马小雨) 연구원은 주민소득이 비교적 더디게 증가하는 원인은 소득분배 개혁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마 연구원은 "중국 소득분배의 정책은 과학적이지 않다. 한편으로는 주민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임금이 1차 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더 빨리 높여야 하고, 한편으로는 지나친 인건비의 인상 압력이 중국의 경쟁력과

기업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건비의 급속한 인상을 유효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소득의 증가폭이 낮으면 사회소득 격차가 확대된다. 현재 사회소득 격차를 반영하는 지니계수는 이미 경계선인 0.5에 근접했고, 사회계층에서 보면, 최상위 소득 10%의 가정이 최하위 소득 10% 가정의 1인당 소득의 65배이다.

보고서는 과거 1년 소득분배의 불합리, 불균형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고, 일정 정도 이미 중국 경제사회 발전을 제약하는 장애가 되었으며, 경제 고도화와 사회변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임금제도 개혁과 소득분배 개혁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최대의 리쿠르트 업체인 이차이(易才)그룹 리하오(李浩) 회장은 업종간 소득격차 이외에 전반적으로 보면, 향후 기업 인건비 인상 추세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고, 특히 고급 인재의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 회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이 조직을 다운사이징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재 생산기업, 공장 및 중소기업에서 감원을 한 기업이 다소 증가했다고 말하면서 인건비의 증가로 기업은 산업고도화와 혁신의 고려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에 접어들어 기업이윤과 재정소득의 증가율이 모두 감소세를 보여 소득분배 개혁의 기초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경제 고속성장기에 해결할 수 없는 소득분배관계는 반대로 경제성장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 연구원은 "국가와 기업이 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 버렸고, 근로자 개인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순조로운 소비의 궤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사회 재생산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의 선순환에 단절이 발

생할 것이고, 경제 운행은 필연적으로 위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新浪网, 2012년 9월 18일자, ‘中国薪酬报告:居民收入占国民收入比重不升反降’

중국 : 2012년 2분기 15개 도시 4대 업종 임금 15% 인상

최근 신화징찬쓰방(新华经参仕邦) 인력자원연구원은 베이징(北京)에서 ‘2012년 제2분기 인력자원지수보고(2012年第二季度人力资源指数报告)’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2분기 15개 도시의 4개 업종의 노무과건 고용인원의 평균임금이 18.32% 증가했고, 인플레이션 요인을 제외해도 15.12% 증가했으며, 향후 거시정책 조정효과로 인해 노동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별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대다수 도시의 고용량이 증가했지만, 광저우(广州) 등 도시의 고용량은 감소했고, 중서부 도시의 임금은 명확하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15개 도시의 임금은 13개 도시는 증가했고, 2개 도시는 감소했는데, 쿤밍(昆明), 상하이(上海)를 제외한 기타 도시의 임금은 모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4개 업종의 고용량은 동기 대비 2개 업종이 증가했고, 2개 업종은 감소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교통운수 및 창고와 우정업의 고용량은 연속 3개월 40% 이상 증가했고, 금융업의 고용량도 연속 3개월의 증가했지만, 도소매업, 제조업의 고용량은 연속 3개월 감소했다. 임금측면은 금융업을 제외한 기타 3개 업종의 임금

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교통운수 및 창고와 우정업, 도소매업, 제조업의 임금은 지난 4~6월 석달간 서로 다른 인상을 보였다. 또한 제조업, 도소매업의 임금 증가폭은 4~6월 석달간 교통운수 및 창고와 우정업보다 높았고, 금융업의 임금은 연속 3개월 하락했다.

보고서는 노무과건 고용량에 변화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첫째, 거시경제 형세의 증가 속도가 하락하여 노무과건 고용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주삼각 지역 도시의 경제성장세가 다소 회복되어 고용량의 감소세가 전환되었다. 셋째, 업계발전 현황의 차이가 노무과건 고용량의 업종 격차를 유발했다. 이외에 2분기 다음과 같은 새로운 현상들이 부각되면서 이들 업계의 고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첫째, 인건비가 인상되어 제조업의 취업기회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산업구조 고도화 중에 나타난 첨단 제조업이 노동력의 학력과 기능에 대한 높아진 요구도 대다수 저학력 근로자의 취업기회를 감소시켰다.

임금변동도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기인한다. 먼저, 노동강도의 증가와 임금인상의 조치가

상호작용하면서 임금의 증가를 유도했다. 교통운수 및 창고와 우정업은 노동강도가 높고, 노동업무량이 커 임금의 증가를 자연적으로 가져왔다. 이와 동시에 최근 국가 및 지방정부가 발표한 임금인상과 관련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했다. 다음으로, 서로 다른 지역의 도시경제 구조조정 전략의 차이가 임금변동의 차이를 유발했다. 제조업이 현재 연해 지역에서 내지로 이전하고 있고, 중서부의 도시들로 제조업 공장이 이전하면서 소득 증가가 취업 증가를 이끄는 선순환으로 점진적으로 들어갔고, 노무과건 고용의 수요와 공급이 많아져서 수급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교통운수 및 창고와 우정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제조업의 구조적 조정이 처음으로 성과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향후 1, 2분기 이후 국가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한 거시조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한편, 고용량 감소의 유인도 존재하는데, 주로 저가형 제조업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비용의 압박과 외부시장의 축소는 일부 취업의 흡수력이 강한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2012년 2분기 노무과건 인원의 고용량과 실질임금은 일정 정도의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 가지 건의를 제시했다. 첫째, 감세와 신용대출 우대조치를 빠르게 시행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민간투자를 위한 조건을 마련한다. 현 정책조치를 양호하게 시행한 기

초 위에 새로운 경제부양계획을 신중하게 시행한다. 동시에 민간투자를 동원하기 위해 노동 흡수력이 강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둘째, 각 방면의 역량을 충분히 동원하여 근로자의 합리적인 유동을 유도한다. 소득분배 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업종 간의 소득격차를 축소한다.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에 대해 균등한 사회보험, 자녀교육 등의 측면의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실현한다. 셋째, 정부 관련 부문이 적합한 산업발전규획과 지역경제발전의 교육훈련요강을 제정하는 동시에 당해 지역 구직자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노무과건 인원과 기업의 관련직무 사이의 정합률을 높인다. 넷째, 청년취업자의 취업 관념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자기에게 적합하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취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국 인력자원의 합리적인 배치와 노동력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유리할 것이다.

이 지수는 신화사 경제참고신문사와 광저우 쓰방(仕邦) 인력자원유한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신화경참쓰방(新华经参仕邦) 인력자원지수 연구원이 발표했다. 2010년 1월을 기준으로 중국 15개 도시(9개는 동부, 3개는 중부, 3개는 서부)와 교통운수 및 창고와 우정업, 금융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 네 가지 중점 업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고, 취지는 일부 도시 일선근로자 가운데 노무과건 인원 소득 및 노동력 수급변동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다.

- 출처: 新華網, 2012년 10월 11일자, ‘二季度15城4行业工资增长15% 用工需求增加’



중국 : 2013년 석박사 졸업자 11% 증가 예상

2013년 베이징 지역 대학 졸업자 수가 2012년에 비해 1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10월 11일, 2013년 대학 졸업자 채용박람회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올해 석박사 졸업자가 증가한 탓에 석박사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용박람회 부스가 작년보다 6곳이 늘어났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2012년 베이징 지역 대학 졸업자 가운데 석박사 졸업자는 6만 6천 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7만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체 대학 졸업자 수도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올해보다 22만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지역 대학 생 취업지도센터 관계자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채용박람회를 기존 개최 시기보다 서둘러 개최하였고, 채용박람회 횟수도 늘어났으며, 올해 연말 이전에 50회가량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2년 10월 11일 오전 처음으로 개최된 채용

박람회에서 80개 업체가 2,656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소개하였다. 오후 1시까지 1,260여 명이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학교, 정부 기관과 준정부기관이 여전히 졸업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장으로 꼽혔다. ‘베이징중학교’의 채용 부스에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몰렸는데, 오전 11시 30분까지 채용 부스 앞에서 참가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학교에서 접수한 이력서가 무려 4박스에 이를 지경이었다. 베이징공상대학 석사과정 3년차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법학을 전공하였지만, 교사가 되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여 채용 부스 앞에서 혼신을 다해서 자신이 “능력이 뛰어나고 용모 역시 교사 업종에 적합하기에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희망한다”고 취업 의지를 밝혔다.

• 출처: 新京报, 2012년 10월 12일자, ‘明年毕业研究生将增加11%’